

『사회주의자』 주최

“사회주의를 학습하자” 강좌교재

| 제5강 |

사회주의 혁명론

【강 사】

김광수 대림자동차노조 해고자로 수년간 창원지역 노동운동을 하였고, 민주노총 정치위원회 간사, 민주노동당 조직국장, 중앙연수원 부원장 등을 역임하였다. 교육혁명공동행동 공동대표를 맡은 바 있다.

【강의목표】

사회주의는 단지 억압받고 착취받는 대중들의 이상향에 불과한 것이 아니다. 인간이 다른 인간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계급사회 속에서도, 인간은 수천년 동안 생산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왔으며 이러한 생산력 발전을 통해 착취, 억압의 사슬을 끊고 스스로를 해방시킬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왔다. 그리고 이를 통해 인간 개개인의 전면적인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를 건설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왔다.

자본주의는 가속적인 생산력 발전을 통해 이러한 인간해방의 물질적 조건을 현실적인 것으로 만들었으며, 이와 함께, 발전된 생산력과 고도의 사회적 생산형태를 대변하는 노동자계급, 자본주의적 착취와 억압으로부터 자신을 해방시킴으로써 동시에 수천년 동안 지속되었던 착취와 억압을 철폐시킬 사명을 지닌 노동자계급을 창출하였다.

이번 강의는 우선 역사발전 속에서 자본주의가 어떻게 사회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물질적, 주체적 조건을 형성하였는지와 노동자계급에게 부여된 역사적 사명에 대해서 알아본다. 그리고 이러한 물질적, 주체적 조건 속에서 건설된 사회주의는 어떠한 목표를 지향하고 어떠한 특징을 지니는 사회인지 강의한다.

두 번째로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실제로 존재하였던 노동자 사회주의 혁명의 사례인 파리코뮌과 러시아 사회주의혁명의 경험을 공부하여 사회주의의 지향과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1. 자본주의가 만들어 놓은 사회주의 사회의 필연성

가. 생산의 사회적 성격 심화

자본주의는 이윤과 축적을 위해 끊임없이 생산방식을 혁신하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 자본주의에서는 기계제 대공장제에 기반을 둔 단순노동이 확대 일반화되었다. 이러한 단순노동화는 생산단위 내에서의 분업을 촉진하였지만, 이 분업은 상호 분리되어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노동자들의 공동작업을 통해서만 힘을 발휘하여 생산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였다. 분업과 함께 노동자들의 협업이 급속도로 발전하게 된 것이다. 생산과 노동의 사회화는 생산자인 노동자계급을 대공장이라는 장소에 집중하여 협업적인 생산방식에 기반하여 생산활동에 종사하게 하였다. 노동자 개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사소한 단순노동을 진행하는 것이지만, 이러한 단순노동과정은 생산 전체의 일부로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자본주의의 경쟁의 심화와 지속적인 위기는 자본의 집중과 집적을 강화시켜 거대자본을 등장시켰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자본주의는 생산의 사회적 성격을 더욱 강화시켰다.

자본주의에서 생산의 사회적 성격의 강화는 사회주의를 위한 조건을 창출한다. 생산과 노동의 사회화는 직접 생산자인 노동자계급이 거대해지고 집중화된 생산수단을 자본가들의 수중에서 이전하여 노동자계급과 사회전체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합리적이고 계획적으로 생산을 운영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준다.

나. 생산력 발전으로 인간의 필요 충족을 위한 조건 창출

자본주의의 최대성과는 생산력의 발전을 급속도로 이루어놓았다는 것이다. 자본주의의 축적욕구, 생산을 위한 생산, 자본 간의 생존 경쟁 등은 자본가들이 생산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도록 강제한다. 이를 통해 자본주의는 유례없는 생산력의 발전을 가능하게 하였다.

4 | 사회주의를 학습하자!

자본주의는 물질적 생산력의 발전을 통해 인간이 풍요로운 사회를 살 수 있는 물질적 조건을 만든다는 점에서 역사적 진보성이 존재한다. 즉 자본주의는 막대한 생산력을 창출하여 사회 구성원들의 기본적인 필요를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는 사회를 건설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었다.

그러나 자본주의의 고유한 생산관계는 이러한 생산력의 발전과 충돌하고 모순관계에 놓이게 된다. 즉 자본주의 하에서 “생산은 단지 자본을 위한 생산에 불과하며, 역으로 생산수단이 생산자들의 사회를 위해 생활과정을 끊임없이 확대하기 위한 단순한 수단이”(맑스, 『자본론』, 3권) 아니다. 따라서 인류 전체를 위해 쓰여야 할 생산력은 자본주의 하에서는 이윤을 위한 생산, 축적을 위한 축적 속에 갇혀 왜곡된다. 공황은 이러한 생산력과 자본주의적 생산관계의 모순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다. 사회주의를 위한 주체적 조건의 형성

공산당 선언에서는 부르주아지가 “자신에게 죽음을 가져올 무기들을 베풀어 낸 것만이 아니다. 그들은 이 무기들을 쓸 사람들도 만들어 내었다”고 말하였다. 자본주의는 사회주의를 위한 조건만을 창출한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를 타도하고 사회주의를 건설할 노동자계급 또한 만들어내었다는 의미이다.

자본주의의 발전은 생산의 사회적 성격을 강화하여 노동자계급을 더욱 발전시켰다. 근대 산업노동자계급은 자본주의 발전 덕에 대공장에 집중되고, 협업이 강조되는 생산활동의 성격상 집단성이 강해지고 조직과 규율에 익숙해진다.

노동자계급은 등장과 함께 자신의 처지를 개선하고 임노동에서 해방되기 위하여 투쟁을 전개하였다. 자본주의의 역사는 노동자계급의 투쟁의 역사라고 할 정도로 노동자계급은 다양한 형태로 투쟁을 전개하여왔다. 자본주의 초기부터 임금인상, 노동시간의 축소, 정치적 권리의 획득 등을 위해 투쟁하였다. 노동자계급의 투쟁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고양되어 자신의 자주적 조직을 형성하고, 정치권력의 획득을 추구하는 데에 나아갔다. 러시아에서는 1917년 노동자계급이 사회주의 혁명을 쟁취하기도 하였다.

역사 발전에서 자본주의 단계의 특징은 다음으로 요약할 수 있다.

자본주의는 생산력을 모든 인간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수준으로 발전시킨다. 생산의 고립되고 개별적인 성격을 타파하고 사회적 성격을 강화하였다. 이러한 것들은 계급이 없는 사회를 위한 조건을 마련해준다. 이와 함께 자본주의는 발전된 생산력을 실제로 이용하여 생산을 수행하는 노동자계급을 창출하는데, 발전된 생산력을 대변하는 노동자계급은 자신을 옹매는 자본주의적 착취를 철폐하고 인간 전체의 해방을 이룰 수 있는 계급으로 성장하게 된다.

한편 자본주의의 소유관계는 생산력의 발전, 생산의 사회화와 끊임없는 모순 상태에 들어가서, 자본주의 하에서는 발전된 생산력, 사회화된 생산이 모든 인간을 위해 사용되지 못하고, 일부의 착취자들의 이익을 확대시켜주는 데 종속되어 있다. 이는 결국 경제공황 등 끊임없는 위기를 낳는다.

따라서 자본주의는 모든 착취와 억압이 철폐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물질적 조건을 역사상 처음 만들어 내었지만, 반면에 이러한 조건은 자본주의적 소유관계에 의해 가로막혀 왜곡되고 있다. 이러한 모순은 노동자계급의 혁명적 투쟁, 자본주의를 극복하고 사회주의를 실현하는 투쟁을 통해서만 극복될 수 있다.

2. 노동자 계급 등장의 역사적 의의

가. 지금까지의 인류사회는 계급사회이다.

인류사회에 대한 지식의 확대는 원시사회가 공산주의적 성격을 지닌 사회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회형태는 토지 공동소유에 기반을 둔 촌락공동체였다. 여기에서는 생산과 생산물의 분배가 공동으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계급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 사회였다. 그러나 사회가 발전하고 생산력이 성장하면서 잉여생산물이 생겨나게 되었고, 이 잉여생산물을 생산자들에게서 착취하여 생활하는 집단들이 생겨나게 되었다.

즉 계급은 사회의 생산력 발전에서 생겨난 사회적 부를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지 못하고, 일부의 특정 집단이 이 부를 생산자로부터 착취하여 전유하는 데에서 등장하였다. 지금까지의 인간사회는 한 계급의 땀과 노고, 즉 사회적 부를 다른 계급이 빼앗아가고 이것을 지배-피지배 관계로 영속화하는 공통점을 가진 계급사회이다.

따라서 원시 공산주의 이후 여러 역사 단계는 하나의 계급사회가 다른 계급사회로의 이전이었으며, 지배계급은 언제나 인구의 다수를 착취하는 소수의 착취자 계급이었다. 노예제는 노예주가 주인인 사회였으며 노예의 노동에 기반을 둔 사회였다. 노예제가 해체되고 들어섰던 봉건제는 인신의 보호라는 이유를 들며 소수의 전사 계층이 농민을 예속화하였으며, 이들은 봉건영주로서 지배계급이 되었다. 자본주의는 봉건제의 구속에서 사회를 해방하고 자유를 인간에게 가져다 줄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노동자계급에게 자유는 생산수단으로부터의 자유였으며 자신의 노동력을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는 자유에 불과하였다. 자본가들은 새로운 지배계급이 되어 봉건영주를 대체하였을 뿐, 착취에 기반을 둔 계급사회의 성격을 극복하지는 못하였다.

나. 과거의 혁명이 지니는 특징

과거의 혁명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우선 이제까지의 모든 혁명은 어떤 특정한 계급 지배를 통한 다른 계급 지배의 구축으로 귀결되었다.”(엔겔스, 「칼 맑스의 『프랑스에서의 내전』 단행본 서설」) 앞서 언급하였듯이 과거의 계급투쟁은 한 계급사회에서 다른 계급사회로의 이전만을 낳았다. 유럽에서는 노예제에서 봉건제로, 다시 자본주의로 계급사회의 변화를 낳았다. 역사적으로 치열한 계급투쟁이 많이 발생하여 난세라고 일컬어지는 무수한 농민전쟁이 있었던 중국의 경우에도 농민전쟁의 결과는 언제나 새로운 지배계급의 등장으로 귀결되었다. 농민전쟁을 제압한 기존 지배계급의 권력 재장악은 물론이거니와 유방과 주원장의 경우처럼 농민출신으로 농민전쟁을 이끌어 승리한 지도자들의 경우에도 결국 계급자체의 폐지를 낳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새로운 지배계급이 되었을 뿐이다.

두 번째로 이제까지의 혁명은 다수가 참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수의 지배하에 이루어졌으며 혁명의 과실은 소수의 지배자들이 가지고 갔다. 다수는 기존의 체제에 분노와 불만을 가지고 적극 참여하였더라도 전체적인 혁명의 과정에서는 “소수자를 위하여 변혁에 가담하거나 그저 조용히 그 변혁에 따르거나 하였”을 뿐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기존의 혁명은 “소수자의 혁명”이라고도 칭할 수 있다.

다. 노동자계급 등장의 의의와 노동자계급의 역사적 사명

(1) 자본주의는 노동자계급을 창출하여 이들이 계급투쟁에 나서게 한다.

자본주의는 대규모의 산업 노동자계급을 창출하였다. 자본가계급은 노동자가 생산해 낸 잉여가치를 착취하여 부를 축재한다. 노동자계급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피착취계급을 구성한다.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의 착취, 지배관계는 노동자가 자본가에 대항하여 계급투쟁에 나서지 않을 수 없게 한다. 이 투쟁은 임금과 노동조건 개선이라는 경제적 요구부터 사회적, 정치적 권리의 획득 등의 정치적 요구까지 폭넓게 진행된다.

(2) 노동자계급의 경제적 위치는 노동자계급을 사회의 주요한 계급으로 만든다.

자본주의는 기계제 대량생산 등을 통하여 노동자계급을 인구의 다수로 만들

8 | 사회주의를 학습하자!

었다. 노동자계급은 자본주의가 만들어놓은 조건에 의해 사회변혁의 주체로서 나설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노동자계급은 자본주의의 발전에 따라 몰락해가는 여타 계급(소부르주아계급)과 달리 상승하는 계급이다.

또한 산업발전에 의해 노동자계급은 노동을 통해 서로 결속하게 되는데 이런 결속은 그들의 급속한 수적 증가, 모든 지역적 한계를 분쇄해가는 연대, 그들의 국제적 성격, 경제의 요충 지점에 대한 그들의 집중에 의해 강화된다. 또한 노동자계급은 조직성과 규율에 익숙해져 있으며, 따라서 다른 어떤 계급보다도 목적의식적이고 조직화된 활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마지막으로, 노동자계급은 자본주의의 생산력의 담지자이다. 노동자계급은 자본주의가 도입하는 생산력을 실제로 공장에서 실행에 옮기는 생산자들이다. 자본주의의 생산력은 노동자계급을 통해 발현되는 것이다. 따라서 자본주의가 만든 사회주의를 위한 조건은 노동자계급만이 현실화시킬 수 있다.

이러한 노동자계급의 특징은 노동자들의 계급투쟁에 전사회적이고 진보적 성격을 부여한다. 그리고 노동자계급의 역사적 임무를 객관적으로 규정하게 된다.

※ 자본주의 하에서 다른 피지배계급의 조건과 노동자계급과의 관계

자본주의 하에서 노동자계급과 더불어 인구의 상당수를 구성하는 소부르주아계급은 자본주의의 발전과 함께 몰락하게 된다. 자본의 경쟁과 무한한 축적이라는 자본주의의 발전경향은 자본의 집적과 집중을 강화시켜서 대자본의 형성을 촉진하고 경쟁에 도태되는 중소자본의 몰락을 조장한다.

이러한 현상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로는 SSM의 대두로 몰락하고 있는 재래시장의 상인들을 들 수 있다. 자본은 유통의 영역까지도 모두 장악하고자 하며, 한국에서 이는 대형마트의 등장으로 시작되었다. 대형마트가 포화에 이른 상태에서 상업자본은 중소규모 슈퍼마켓 사업에도 뛰어들고 있다. 그 결과 중소상인들은 상업자본의 침투 앞에 몰락할 수밖에 없다. 노점상 등의 빈민들은 상당수가 이미 자본의 집적과 집중 과정에서 몰락한 다양다종의 계급, 계층에서 형성되었다.

한편 자본주의의 모순으로 고통 받는 여러 계급들이 존재하는데, 때론 이들 중에는 노동자계급보다 더한 고통을 받는 경우도 있다.(소부르주아 중에서도 하

층, 농민, 빈민 등) 그러나 이들이 자본주의 모순으로 고통 받고 있다고 해서 곧바로 노동자계급과 같이 혁명적인 성격을 갖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경우에 따라서 이들은 반동적으로 대응하기도 한다.

이들 대부분은 다소의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있는 계급들이다. 이들은 자신의 생업부문이 대규모 자본에 의해 흡수됨에 따라 몰락과 분해의 과정을 받는다. 이 과정에서 일부는 자본주의의 모순을 이해하고 노동자계급의 편에 서서 자본에 맞서 함께 싸울 수도 있지만, 다른 일부는 자신의 생산수단에 집착하면서 대규모 자본이 등장하여 자신의 생업을 짓밟기 전으로 되돌아가기를 원하거나, 자본의 편에 서서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곤 한다. 후자의 경우에는 반동적 세력의 일부를 이루게 된다. 따라서 이 계급들이 혁명적이기 위해서는 노동자계급의 관점을 받아들이고 노동자계급과 함께 투쟁해야 한다.

(3) 노동자계급은 자신의 해방을 통해 인간해방을 실현한다.

과거 역사에서 한 사회에서 다른 사회로의 변화는 한 착취자에서 다른 착취자로의 변화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피착취계급으로서 자신이 처해있는 착취와 지배를 근절하려는 노동자계급은 자신의 해방을 통해 새로운 착취관계를 만들어 내지 않는다. 이는 기존의 지배계급의 대체가 새로운 지배계급의 등장을 가져온 과거의 혁명과는 완전히 다른 특징이다. 노동자계급은 혁명을 통해, 새로운 지배계급으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의 착취와 억압을 철폐하며 이와 함께 수천 년 동안 계속되어 온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와 억압을 모두 철폐하고 계급 일반을 없애어 인류를 해방시킨다.

노동자계급의 혁명이 이러한 보편적 해방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자본주의의 발전과 노동자들의 경제적 위치에 기인한다. 자본주의는 생산력과 생산의 사회화를 높은 수준으로 진척시켜 한 인간집단이 다른 인간집단에 대해 착취와 억압을 하지 않고서도 살아갈 수 있을 정도의 발전을 이룩하였다. 따라서 “현대의 부르주아적 사적 소유는 계급 대립에, 즉 한 계급에 의한 다른 계급들의 착취에 근거하는 생산물의 생산 및 전유의 최후의, 그리고 가장 완성된 표현”(맑스, 엥겔스, 『공산당 선언』)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자본주의 하에서 피착취, 피억압 계급인 노동자계급은 자본주의적 생산관계 속에서 고통받는 계급인 동시에 자본주의 하에서 발전해온 생

10 | 사회주의를 학습하자!

산력의 발전을 대변하고 이를 실행하는 생산자계급이다. 따라서 노동자계급은 자신을 자본주의적 착취와 억압에서 해방시키는 과제와 발전된 생산력을 진보적으로 이용하여 착취와 억압 일반, 계급 일반을 폐지하는 과제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계급이 되었다.

요컨대 자본주의 하에서 생산의 주체이자 착취의 대상인 노동자계급은 자본주의의 사적 소유, 계급 착취를 철폐하고 생산력을 진보적으로 이용하여, 모든 인간의 필요를 충족시키고 인간의 전면적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를 만들 수 있다. 이러한 노동자계급의 역사적 의의를 『공산당 선언』은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만일 프롤레타리아트가 부르주아지에 대항하는 투쟁에서 필연적으로 계급으로 단결되고 혁명을 통해 스스로를 지배 계급으로 만들고, 또 지배 계급으로서 넓은 생산 관계들을 폭력적으로 폐기하게 된다면, 그들은 이 생산 관계들과 아울러 계급 대립의 존립 조건들과 계급 일반을 폐기하게 될 것이고, 또 이를 통해 계급으로서의 자기 자신의 지배도 폐기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계급과 계급의 대립이 있었던 넓은 부르주아 사회 대신에 각인의 자유로운 발전이 만인의 자유로운 발전의 조건이 되는 하나의 연합체가 나타난다.”

노동자계급이 지니는 역사적 의의는 노동자계급을 가장 혁명적 계급으로 만든다. 즉 노동자계급은 자본주의 하에서 가장 고통 받거나 억압받는 계급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자신의 해방을 통해 보편적 인간해방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혁명의 지도적 계급인 것이다.

3. 사회주의 혁명의 의의

가. 계급 폐지와 인간해방의 실현

『공산당 선언』의 표현을 빌리자면 “현대의 부르주아적 사적 소유는 계급 대립에, 즉 한 계급에 의한 다른 계급들의 착취에 근거하는 생산물의 생산 및 전유의 최후의, 그리고 가장 완성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노동자계급이 착취에서 해방된 사회인 사회주의 사회는 따라서 최후의 착취형태인 자본주의의 사적 소유를 폐지한다. 이를 통해 모든 인간에 대한 인간의 착취와 억압을 근절한다.

자본주의 착취의 근절을 통해 수천 년 동안 지속되었던 인간에 대한 다른 인간의 착취와 지배를 근절하는 것이야말로 사회주의 사회의 최대 목표이자 존재의의라 할 수 있다.

나. 인간에 의해 합리적, 의식적으로 운영되는 생산체제, 사회체제의 건설

사회주의에서는 처음부터 생산에 참여하는 사회구성원의 공동 운영과 결정에 의해서 사회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을 우선적 목표로 삼는다.

자본주의는 상품생산이 일반화되었기 때문에 상품의 판매를 통한 화폐의 획득이 우선적인 목표가 되어 사회적 필요는 시장을 통해 사후적으로 충족된다. 그리고 자본주의에서는 생산의 사회적 성격이 심화되고 생산력이 계속 발전하지만, 생산수단을 소수의 자본가가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부가 사회 전체를 위해 이용되지 않는다.

사회주의 사회는 이러한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극복할 것이다. 그리고 인간의 필요가 아닌 자본의 이윤을 위해 생산하는 체제를 극복할 것이다. 이는 노동자 통제, 계획경제 등을 통해 사회 전체의 이익을 목적으로 구성원들이 사회를 합리적, 의식적으로 운영할 때 가능하다.

다. 노동 분업 폐지와 노동의 소외 극복

노동의 분업은 생산력의 발전과정 속에서 발생한 것이지만, 이는 인간의 발전을 왜곡하는 역할을 하였다.

가장 대표적인 노동 분업인 도시와 농촌의 분리는 사회가 일정정도 생산력이 발전하면서 농업과 수공업, 상업이 분리되는 현실을 반영하였으며, 이러한 분리는 자본주의 하에서 고도로 발전하였다.(도시화) 그러나 이러한 분리는 도시에 대한 농촌의 종속, 토양영양분 순환의 붕괴, 에너지 순환의 붕괴 등 인간과 자연 사이의 관계에 심각한 균열을 낳았다.

인간이 노동을 하는 데 있어 계획하고 구상하는 기능과 계획을 실행하는 기능의 분리는 육체노동과 정신노동의 분리를 낳았다. 육체노동과 정신노동의 분리는 계급의 등장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지배계급은 직접생산자가 생산한 잉여로 생활을 영위하며, 생산수단의 소유를 통해 직접생산자의 노동을 통제한다. 더 나아가 스스로를 지배계급으로 유지하기 위한 이데올로기의 생산, 사회의 통치와 관련된 부분을 장악한다. 이는 자본주의 하에서도 동일하다.

이러한 노동의 분업은 생산자의 노동을 일면적이고 종속적인 노동으로, 전체적인 생산과정에서 통제권, 결정권을 가지지 못하는 생산에서 하나의 톱니바퀴에 불과한 노동으로 만들었다. 즉 노동의 소외가 심화되었다. 자본주의 하에서 노동형태(단순노동 등)는 이러한 노동의 소외를 더욱 심화시켰다.

사회주의는 이러한 노동의 분업을 폐지하고 노동의 소외를 극복해갈 것이다.

라. 자유로운 생산자들의 연합체의 건설, 자유로운 인간의 전면적 발전

자본주의의 발전은 인간의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정도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발전의 결과물들이 모두를 위해 이용되지 않는다. 반면 사회주의는 생산력 발전의 결과물을 모든 사회구성원이 향유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사회주의는, 자본주의의 고유한 특징인 이윤욕을 위한 생산 그 자체의 추구가 생산활동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이다. 사회주의의 목적은 발전한 생산력을 이용하여 의식주 등 인간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더 나아가 생활의 전 영역에서 인간의 능력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한편 사회주의는 노동이 제1의 욕구가 되는 사회를 만들 것이다. 착취와 지배가 제거된 노동은 결국 그 창조적 성격만 남는다. 사회주의에서 노동은 지배 계급의 배를 채워주는 고역이 아니라, 자연과 사회를 변화시키고 그 과정에서 인간 스스로를 변화시키는 것이 된다. 따라서 자유로운 생산자로서 노동자들은 노동을 통해 자신의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회주의의 성격을 맑스는 ‘각인의 자유로운 발전이 만인의 자유로운 발전의 조건이 되는 하나의 연합체’, ‘자유로운 생산자들의 연합체’라고 규정하였다.

4. 1871년 프랑스 파리코뮌

가. 독불전쟁의 발발과 파리코뮌의 등장

1870년 7월 19일 나폴레옹 3세의 선전포고로 프랑스와 프로이센 사이의 전쟁이 시작되었다. 이 전쟁은 표면적으로 프로이센 호헨츨레른 가의 레오폴트 공이 스페인 왕위에 오르려고 한다는 소문이 원인이 되었다. 프랑스 입장에서는 독일 통일을 추구하는 프로이센의 영향력 확대를 달갑게 생각하지 않았다. 이 전쟁은 일종의 전형적인 유럽의 왕조, 영토 전쟁의 형태를 띠었던 것이다. 이와 동시에 제 2 제정은 이 전쟁 승리로 권력을 다시 강화하고자 하는 의도를 지니고 있었다.

전쟁은 프랑스에 불리한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8월 4일이 되자 맥마흔 원수가 패퇴하여 낭시까지 도망쳤으며, 바젠 원수는 메츠에서 포위되었다. 9월 1일에는 세당에서 독일군과 전투가 벌어져, 9월 2일 맥마흔과 나폴레옹 3세가 장군 39명, 장교 2,700명, 사병 84,000명과 함께 포로가 되었다.

이러한 참패 속에서 제정은 지속될 수 없었다. 9월 3일부터 정부와 공화파 사이에 타협이 진행되고 있었다. 그러나 어떤 합의도 찾지 못한 상황에서 9월 4일이 되었다. 상황은 노동자들의 개입으로 변화하였다. 9월 4일 이른 아침부터 군중들이 의회장소인 부르봉 궁 주변으로 몰려들기 시작하였으며, 오후 3시경에는 회의장을 모두 군중들이 점거하게 되었다. 군중들은 공화제의 선포를 요구하였다. 결국 저녁에 자리를 파리 시청으로 옮겨 공화국을 선포하고 국민방위정부를 수립하였다. 국민방위정부는 프로이센 군대의 파리 진격이라는 조건 속에서 결사 항전의 의지를 천명하였다. 그러나 노동자들의 압력 속에서 수립된 국민방위정부의 구성원들은 대체로 온건한 공화주의자들이었다. 그리고 결사 항전의 의지 역시 표면적인 것에 불과하였다. 정부의 생각으로는 위협적인 세력은 침략 중인 프로이센군이 아니라 파리의 노동자들이었다.

9월 19일 프로이센군은 파리를 포위하기 시작하였으며, 이와 동시에 정부는 외상 파브르를 통해 비스마르크와 휴전 협상을 시도하였다. 반면 부자 구에



세당전투에서 포로가 된 나폴레옹과 승리자 비스마르크



독불전쟁에서 프랑스가 패한 후 파리를 지키기 위해 들고 일어난 민중

만 존속하고 있던 국민방위대(프랑스 혁명 시부터 존속하였던 파리 시민들의 민병대)는 빈민 구까지 확대되어 9월 말에는 35만 명으로 팽창하였고, 화포를 3,000문 가량 보유하게 되었다.(당시 파리를 포위한 독일군 병력은 총 15-20만 명이였다)

10월이 되면서 포위된 파리의 혁명 열기는 더욱 가열되었다. 10월 5일, 1만 명의 국민방위대는 구스타브 프로랑스를 선두로 시청으로 행진하여 포위망을 뚫기 위한 공격을 왜 하지 않고 방위대 병력을 썩히고 있는지 질의하였다. 그리고 국민방위대의 즉각적 출격 명령과 방위대에 제복, 무기 지급, 파리에서의 즉각적인 선거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0월 27일에는 바젠 원수가 180,000명의 병사와 함께 항복하였다. 10월 31일 파브르의 항복협상이 알려지고, 메츠에서의 항복이 알려지자, 노동자들과 혁명세력은 분기하여 시청으로 몰려들어 공안위원회를 설치하였다. 국민방위정부의 수반은 가까스로 시청에서 탈출하여 정부를 지지하는 국민방위대를 규합할 수 있었다. 정부 측 방위대와 반정부 방위대의 유혈충돌 직전 상황에서 양측 간 타협이 성립하여, 코뮌의 즉각적 선거와 정부 내각의 선거를 정부로부터 약속받았다. 그러나 정부는 코뮌의 선거를 파리 구장, 부구장 선거로 탈바꿈하고 정부 내각 선거는 정부의 신임을 묻는 주민투표로 바꿔치기 하였다. 그 결과 11월 3일 주민 투표, 11월 5-8일 코뮌 구장, 부구장 선거가 실시되었다. 이는 정부 측의 완전한 승리를 가져주지는 못하였지만, 노동자들의 행동을 잠재울 수 있었다.

계속되는 포위로 파리 시민들의 고통은 날로 심해졌다. 12월 27일부터는 독일군의 집중 포격으로 더욱 큰 고통을 받았다. 특히 노약자와 유아들의 타격이 심해 4,800명의 유아가 사망하였다. 1871년 1월 15일부터 정부는 다시 휴

전협정에 들어갔다. 파리의 혁명세력과 노동자들은 1월 22일, 무장시위를 하였고 사상 처음으로 정부 측 국민방위대와 무장충돌이 발생하였다. 결국 1월 28일 프로이센과의 휴전이 합의되어 3주일간의 임시 휴전에 들어갔다.

휴전기간 중인 1871년 2월 8일에는 총선거가 실시되었다. 총선거는 1849년 공화국의 선거법에 따라 실시되었는데, 선거결과 768석 중 400석 가량이 왕당파가 차지하였다. 이러한 선거 결과는 파리 시민들을 분노하게 하는 것이었으며, 4개월간의 수도방어를 무시하는 것이었다. 이 의회는 보르도에서 개최되었는데, 보르도 의회는 휴전에 찬성하고, 2월 27일 국민방위정부를 대신하는 프랑스 공화국 행정수반으로 티에르를 임명하였다. 티에르는 왕당파였으며 노동자 계급에게 적대적인 인물이었다. 파리의 민중들은 보르도 의회와 새로운 정부를 철저히 불신하였다.

강화조약의 내용은 알자스, 로렌 지방의 프로이센 할양, 50억 프랑의 배상금 지불, 승리의 상징으로 이틀간의 파리 진주 허용이었다. 이러한 굴욕적 항복은 보르도 의회에 의해 인준되었다. 보르도 의회는 파리 민중을 분노케 하는 조치를 취한다. 우선 10월 31일 무장 시위에 참여한 주동자 4명에 대해 사형을 언도하고 6개의 좌익 잡지를 폐간시켰다. 채무 만기법의 제정을 통해 전쟁 중 지불이 유예된 모든 채무를 48시간 안에 갚도록 하였다. 이 법은 전쟁으로 경제활동이 마비된 파리 민중들을 우롱하는 처사였다. 마지막으로 국민방위대에 대한 일당 지금을 정지시켰다. 이는 파리의 민중들이 정부에 돌아서게 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1월 28일 휴전 이후 파리의 분위기는 급진화되었다. 이 시기 동안 15만에 달하는 부유한 시민들이 파리를 빠져나갔다. 그리고 항복 이후, 군인들과 국민방위대는 더욱 급진화되었다. 2월 15일부터 국민방위대는 프로이센에 대한 강화 반대와 파리 방위대의 연합체 구성을 결의하였고, 3월 15일 국민방위대 중앙위원회를 정식 성립하였다. 2월 24일, 26일 국민방위대는 자체적인 시위를 진행하였고, 30만 가량의 일반 시민들도 대거 합세하였다. 이날 국민방위대는 파리 시내에 산재해 있던 대포 170문을 몽마르트 언덕에 옮겨 놓았다. 이 대포들은 정부소유가 아니라 파리 시민들의 모금을 통해 제작된 것으로 국민방위대의 소유였다.

전반적인 상황은 이제 프로이센군과 파리 민중들의 전투가 아니라, 파리의

민중들과 이들을 분쇄하려는 프랑스 지배계급간의 투쟁이 되었다. 정부는 보나파르트파 장군 도렐을 국민방위대 사령관으로 임명하였지만, 이미 국민방위대는 정부의 통제 하에 있지 않았다. 국민방위군은 40만에 달했으며, 자체적인 대포도 소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정부는 독일과의 강화조약으로 3개의 정규사단만을 보유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대부분의 군대는 프로이센군의 포로로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파리코뮌의 군사적 우위는 무시할 수 없는 것이었으며, 지배계급을 이를 그냥 좌시할 수 없었다. 3월 18일 새벽 정부는 무력진압을 시도하였다. 목표는 주요 대포진지를 기습하고 몽마르트의 대포를 탈환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발각되어 방위대와 민중들에게 포위되었다.



파리 코뮌은 배외주의의 상징인 방돔광장 전승 원주를 무너트렸다.

이러한 흐름은 혁명을 더욱 진전시켰다. 3월 25일 국민방위대 중앙위원회는 다음날 즉각 코뮌 선거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선거 결과 85명이 당선되었는데, 이중 20명의 온건 공화파를 제외하고는 모두 사회주의 경향의 인물들이었다. 그리고 3월 28일 정식으로 파리 코뮌이 선포되었다.

나. 파리코뮌의 패배와 그 원인

3월 28일 파리가 코뮌을 선포하면서 베르사유로 도망친 정부와의 전면적인 대결은 불가피하였다. 이 대결에서 반드시 파리 코뮌의 패배가 예정된 것은 아니었다. 전쟁 패배의 결과 프랑스 정규군은 해체되고 프로이센군의 포로가 되어 있었다. 반면 파리는 4개월의 포위를 막아내는 동안 40만에 달하는 국민방위대를 무장시킬 수 있었다. 이러한 무장력은 결코 무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따라서 베르사유에 있는 국민의회 정부가 파리를 공격할 군사력을 마련하기 전에 베르사유를 공격하였다면 승리를 쟁취하고 프랑스 전역에 파리코뮌 식의 정치체제를 확대시킬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파리코뮌은 방어적 태도를 취했으며, 베르사유의 정부가 충분히 힘을 결집시킬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었다.

특히 일찍부터 민주적으로 조직되어 있던 국민방위대 중앙위원회가 여기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였어야 했다. 그리고 파리에 남아 있던 중앙은행인 프랑스은행을 장악하여 이를 혁명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했어야 했다.

마지막으로 파리의 노동자들은 1848년 혁명 때와는 다르게 파리의 중간계급을 자신의 편으로 만드는데 성공하였으나, 1848년과 마찬가지로 농민들을 자신의 편으로 만드는데 실패하였다. 그 결과 혁명 파리는 프랑스 안에서 고립될 수밖에 없었다. 이 지점은 계급동맹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전반적으로 5월 중순까지는 파리와 정부군 사이의 포격전이 주류를 이루었다. 당시 썬방의 전력은 4월 중순까지는 호각을 이루었다. 파리코뮌은 지휘와 편성의 혼란 등으로 전력을 극대화하지는 못하였지만 용기와 충분한 군사기술을 지니고 있었다. 반면 정부군은 3월 하순까지 사기가 저하되어 있었다. 베르사유의 정부는 프로이센과 5월 10일 최종 강화조약에 서명하였으며, 파리코뮌을 진압하기 위해 비스마르크와 협상하여 포로를 송환받기 시작하였다. 4월 중순에는 맥마흔을 원수로 하는 13만 정규군이 편성되었다. 이들 정규군은 일반 주민들과 분리되어 파리 공격을 위한 교육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정부 수반인 티에르는 파리코뮌에 대해 계속해서 기만적인 유화 제스처를 취했다.



피의 주간동안 코뮌전사들이 학살당한 “코뮌전사들의 벽”

정부의 공세가 시작되었다. 5월 8일 티에르는 파리 진격이 곧 있을 것임을 알리는 경고문을 선포하였다. 5월 9일 파리 성벽 주변의 이시 요새가 함락되었고 13일에는 이시 요새 동쪽의 방브 요새가 함락되었다. 일주일 후 본격적인 공격이 시작되었다. 5월 21일 2만 명의 돌격대가 시대로 돌입하였으며, 5월 28일까지 일주일간 피의 학살(이 일주일을 “피의 주간”이라고 부른다)이 진행되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코뮌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학살되어, 총 학살자는 30,000명이 넘을 것으로 파악된다. 그 외에 38,000명이 투옥되고 7,000명이 망명을 하였다. 파리코뮌이 진압된 이후에도 학살이 계속되었다.

다. 파리코뮌의 선포와 코뮌의 조치들

- 3월 28일 국민방위대 중앙위원회는 “풍기경찰”의 영구적 폐지를 포고하고 해산함.
- 3월 30일
 1. 징집과 상비군을 폐지하고 무기를 잡을 수 있는 모든 시민으로 이루어진 국민방위대를 유일한 무장력으로 선포.
 2. 1870년 10월부터 4월까지의 주택임대로 면제 및 기 지불금은 향후 지불로 산정.
 3. 시영 전당포에 전당 잡힌 물건의 판매 중지.
 4. 코뮌에 선출된 외국인들의 집무를 비준(“코뮌의 깃발이 곧 세계 공화국의 깃발”).
- 4월 1일 코뮌의 직원, 의원의 봉급이 6,000프랑(노동자의 평균임금)을 넘지 못하게 결정.
- 4월 2일 국가로부터 교회의 분리, 종교에 대한 국가 지원 폐지, 교회재산의 국유재산으로 전환.
- 4월 5일 포로가 된 코뮌 전사의 학살에 대응해 인질의 체포 발표, 그러나 실시되지 않음.
- 4월 6일 국민방위대 제 137대대가 기요틴을 끌어내 공개적으로 불태움.
- 4월 8일 모든 종교적 상징, 성상, 교리, 기도 등 “개인의 양심에 관계되는 모든 것”을 학교 교육에서 추방기로 명령함.
- 4월 12일 배외주의와 민족간 적의의 상징이었던 방돔-광장 전승 원주를 넘어 뜨리기로 결정(5월 16일 실행).
- 4월 16일 폐쇄된 공장들에 대한 통계표 작성, 노동자들을 협동조합으로 결합 하여 이들의 힘으로 공장을 경영하기로 함. 이 조합을 거대한 연합 체로 조직할 계획 작성을 명령함.
- 4월 20일 제빵공의 야간작업 폐지, 직업소개소 폐지.
- 4월 30일 전당포 폐지를 명령함.
- 5월 5일 루이 16세의 처형의 속죄를 위해 건립된 참회 예배당의 파괴를 결정함.

라. 파리코뮌의 의의

파리코뮌이 성립되는 데 있어서, 독불전쟁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지만 이것이 파리코뮌의 성립을 모두 설명해줄 수는 없다. 파리 코뮌은 프랑스에서 자본주의의 발전이 낳은 결과물이었다.

프랑스는 1830년대부터 자본주의가 계속 발전하였으며, 노동자계급의 성장도 지속되었다. 가령 1848년의 2월 혁명의 경우, 노동자계급이 혁명의 발발과 전개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1871년에 이르러서는 수도 파리의 경우에는 특히나, 노동자계급이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주요한 계급으로 성장하였다. 이들은 자본주의 발전 속에서 실업, 빈곤, 착취에 놓여 고통 받고 있었으며, 1860년대 파리의 도시재개발로 형성된 노동자 집단 거주지에서 공동체를 형성하며 정치의식을 발전시켰다.

반면 프랑스의 지배계급은 착취를 위한 탐욕과 부패, 타락을 보여주었지만 지배능력은 상실하였다. 제 2 제정과 지배계급은 국가적 영광을 위해 프로이센과 전쟁에 나섰지만 패배하였으며, 1870년 9월 4일 공화국이 수립된 이후는 침략해오는 프로이센 보다 자국 노동자들을 더 위협적인 적으로 간주하였다. 따라서 이들은 프로이센에 굴종하고 타협하면서까지 주저 없이 노동자들을 분쇄하는 나섰다.

이러한 프랑스 자본주의 발전은 파리코뮌의 성격을 규정해준다. 파리코뮌은 자본주의가 발전한 결과 생긴 사회주의, 노동자혁명이었다. 이는 파리코뮌이 실시한 조치들을 보면 확인된다. 그리고 구성원들 역시 거의 노동자들이거나 공인된 노동자 대표들로 구성되어 코뮌의 조치들은 노동자계급적 성격을 지닐 수밖에 없었다.

코뮌의 중요한 조치들은 코뮌이 단지 일회적 사건이 아니라 사회주의 혁명을 통해 수립할 노동자국가의 중요한 특징들을 담고 있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상비군의 폐지와 무장한 인민으로의 대체(“그래서 코뮌의 최초의 정부명령은 상비군을 폐지하고, 그것을 무장한 인민으로 대체하는 것이었다.”)
- 공직의 선출과 소환(“코뮌은 파리각구에서 보통선거에 의해 선출된 시의원으로

구성되었다. 그들은 책임을 진다. 언제나 해임시킬 수 있었다. 그들의 대다수는 당연히 노동자이거나 노동자계급의 공인 받는 대표자로 이루어져 있었다.”, “이제까지 국가정부의 도구였던 경찰은 그 모든 정치적 속성을 즉시 벗어던지고, 책임을 진다. 언제라도 해임시킬 수 있는 코윈의 도구로 변화된다.”, “다른 모든 행정부문의 관리도 마찬가지이다.”)

- 행동적 기관(“코윈은 의회식의 기관이 아니며 동시에 집행하고 입법하는 행동적 기관이어야 한다.”)
- 노동자의 임금수준(“코윈의원과 그 이하의 공무는 노동자의 임금수준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이는 노동자민주주의의 핵심적 측면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즉 파리코윈의 국가 형태는 노동자들이 국가운영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동시에 여러 가지 통제수단을 통해 자신을 대표하는 자들이 스스로 독립적인 세력으로 변화하는 것을 막는 형태였다. 파리코윈은 이러한 조치를 통해서 사회에 자립하여 사회를 지배하는 국가가 아니라 점차적으로 스스로를 소멸시켜가는 국가를 만들어내었다. 따라서 맑스는 파리코윈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코윈은 본질적으로 노동자계급의 정부였으며, 전유 계급에 대한 부를 가져다 주는 계급의 투쟁의 결과였으며, 노동의 경제적 해방이 완성될 수 있음이 마침내 발견된 정치 형태였다.”

5. 러시아 10월 사회주의 혁명

가. 10월 혁명의 원인

1917년 러시아에서는 혁명이 발발했다. 2월 혁명과 10월 혁명이 바로 그것이다.

2월 혁명이 발발하자, 수백 년 지속되어왔고 1905년 혁명을 통해서도 타도하지 못한 짜르군주제는 단 8일 만에 붕괴하였다. 러시아 혁명이 발생하게 된 원인에 대해서 레닌은 혁명 직후 ‘먼 곳으로부터의 편지’라는 글을 통해 세계사적 중요성을 지닌 수많은 요소들이 결합되어 있음을 이야기하였다.

우선 러시아 1905년 혁명과 그 이후 반혁명기 동안의 경험이 1917년 혁명에서 중요한 토대역할을 하였다.

“1915년에서 1917년 사이에 러시아 프롤레타리아트가 보여준 거대한 계급투쟁과 혁명적 에너지가 없었다면, 2차혁명은 그 초기 단계가 며칠 만에 완결되는 그러한 빠른 속도로 진행되지 않았을 것이다. 1차 혁명(1905년)은 깊숙이 땅을 갈아놓았고, 해묵은 선입견을 뿌리 뽑았으며, 수백만 노동자와 수천만 농민들을 정치적 생활과 정치적 투쟁으로 일깨웠으며, 러시아 사회의 모든 계급들(그리고 모든 정당들)의 실제적 성격, 그리고 그들의 실제적인 이해관계와 세력, 행동양식, 그들의 즉각적, 궁극적 목표들의 배열상태를 서로들에게-그리고 완전히 드러내주었다.”

“이 1차 혁명과 그에 이어진 반혁명의 시기(1907년-1914년)는 짜르군주제의 정확한 본질을 폭로해주었으며, 짜르군주제를 ‘극한상황’으로 몰고 갔다. 그리고 저 괴물 라스프친에 의해 좌우되던 짜르도당의 모든 부패와 추행, 뻔뻔스러움과 타락을 보여주었다.”

그래서 레닌은 “8일간의 혁명은 마치 크고 작은 리허설을 완벽하게 마친 후처럼 ‘연출’되었던 것”이라고 하였다.

두 번째로 세계대전은 혁명의 ‘무대감독’ 역할을 하였다.

“독일 부르주아지와 영국, 프랑스 부르주아지 양편 모두 다른 나라들을 약탈하고, 약소국들의 목을 찢 목적으로, 금융상의 세계 최우위와 식민지 재분할을 목적으로, 그리고 각국의 노동자들을 오도하고 분열시킴으로써 비틀거리는 자본주의적 질서를 구출하기 위해서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제국주의 전쟁은 객관적 필연성에 따라서 자본가에 대항하는 프롤레타리아트의 계급투쟁을 전에 없는 정도로 거대하게 가속화시키고 격화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제국주의 전쟁은 적대적인 계급간의 내전으로 바뀔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전회는 1917년 2월에서 3월에 걸친 혁명에 의해서 시작되었는데, 그것의 최초의 단계는 먼저 두 세력이 짜리즘에 가한 공동의 타격에 의해 특징지어졌다. 그 두 세력 가운데 하나는 그 모든 무의식적 추종자와 의식적 지도자들을 포함하여 부르주아적, 지주적 러시아 전체와, 영국과 프랑스 대사들 그리고 자본가들이며, 다른 하나는 병사와 농민의 대표자들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기 시작한 노동자 대표 소비에트였다.”

러시아 혁명은 결국, 국내외적 모순의 결과이면서, 독점자본주의가 낳은 세계대전의 결과였다.

나. 혁명의 발발과 이중권력

러시아 2월 혁명은 짜르 전제를 타도하였으며, 그 결과 임시정부가 구성되었다. 임시정부는 입헌민주당(카데트)의 르보프 공을 수반으로 하는 부르주아 자유주의 정부였다.

다른 한편, 페트로그라드의 노동자, 병사들은 페트로그라드 노동자 소비에



1917년 3월 8일(구력 2월 23일), 여성 노동자들이 중심이 된 국제 여성의 날 시위가 삼시간에 확대되어 2월 혁명으로 발전하였다.

트를 구성하였다. 소비에트는 1905년 혁명당시 10월과 12월 사이에 존재하였던 노동자의 자주적 기관이었다. 앞서 레닌의 언급대로 짜르전제에 대항하여 자유주의 부르주아와 노동자, 병사, 농민이 최초로 공동으로 대응하였으나, 실질적인 힘은 소비에트에게 넘어가 있어서 임시정부는 소비에트와 협의하여 국정을 운영할 수밖에 없는 처지였다.

이러한 상황은 러시아 사회에 ‘이중권력’이라는 독특한 정치상황을 만들어 내었다. 한편에서는 부르주아 혁명을 추구하고 제국주의 전쟁을 지속하려고 하는 임시정부와 다른 한편에서는 부르주아 혁명을 넘어서고자 하고 전쟁의 종식을 원하는 노동자 민중의 대표기관인 소비에트가 공존하면서 국가권력을 경쟁, 분점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이중권력은 봉건성과 고도의 자본주의 발전의 결합이라는 러시아 혁명의 특수한 발전을 표현하는 바, 이러한 이중권력 상황은 해소되어야만 하였다.

카데트, 사회혁명당 우파, 멘세비키 등은 혁명을 부르주아적 틀 내에 한정하려 하였다. 게다가 이들은 제국주의 전쟁을 지속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는 인구 대다수의 바람과는 양립할 수 없었다. 2월 혁명 자체가 전쟁에서 오는 고통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기 때문이었다. 이는 “빵과 평화”라는 구호 속에 잘 드러났다.

4월이 되자 임시정부의 외무장관 밀류코프는 서방 동맹국들에게 각서를 보내 새 정부는 짜르정부의 전쟁목표를 충실히 추구할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이는 대중의 분노를 폭발시켰으며, 결국 불신당한 임시정부는 각료 6명을 사회주의자(멘세비키)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이렇게 형성된 연립정부 또한 전쟁을 지속하려는 의지를 버리지 않았으며, 이는 결국 임시정부와 임시정부에 입각한 멘세비키의 본질을 대중들이 파악하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 4월 3일 망명지에서 돌아온 레닌은 4월테제를 발표하여 “러시아가 당면한 상황의 특이한 양상은 나라가 혁명의 최초의 단계-프롤레타리아트의 불충분한 계급의식과 조직화로 말미암아 부르주아지의 손아귀에 권력을 주었던-로부터 프롤레타리아트 및 농민의 극빈계층의 손에 권력을 쥐어야 할 혁명의 두 번째 단계로 옮겨가가고 있다는 점”이라고 설명하고, 이에 근거하여 “모든 권력을 소비에트로”이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그 동안 볼셰비키가 채택해왔던 프롤레타리아와 농민의 혁명적 독재라는 혁명의 상과상이하게 다른 것이었기에 많은 당원들이 반발하였다. 그러나 레닌의 입장은 당내 토론을 통해 조만간 당 공식 노선이 된다.



4월 3일 망명지에서 돌아온 레닌은 4월테제를 발표하여 “모든 권력을 소비에트로”이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6월 초 최초의 전러시아소비에트대회가 열려 3주 동안 회의가 지속된다. 여기서 볼셰비키는 소수파의 위치를 점하고 있었다. 이 기간 중 볼셰비키는 6월 10일로 잡은 집회를 추진하지만, 전국소비에트대회는 이를 금지하였다. 6월 18일이 되자 케렌스키가 수반으로 있던 임시정부는 다시금 동부전선에서 대대적인 공세를 감행한다. 이날 전러시아소비에트대회는 대대적인 시위를 수도에서 감행하였다. 이 시위는 노동자와 병사가 소비에트의 친임시정부적 태도에 반대하고 볼셰비키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음이 공개적으로 드러난다. 50만 명이 참여한 이 시위에서 나온 구호들은 “자본가 각료 10명을 타도하자!”, “전쟁에 반대한다!”, “소비에트에 모든 권력을!” 등 볼셰비키의 구호들로 채워졌다.



6월 18일 집회. 전면 현수막에는 “자본가 각료 10명을 타도하자”, “모든 권력을 노동자, 병사, 농민 소비에트로”, “사회주의 각료를 세우자” 등이 적혀 있다.

새로운 공세와 경제상황은 노동자와 병사들이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빵 배급을 기다리는 줄은 한 없이 길어졌으며, 통화의 가치는 폭



전선에서의 새로운 공세와 처참한 경제상황에 저항하여 시작된 '7월사태'는 반혁명적의 대대적인 공세를 몰고 온다.



8월이 되자 총사령관인 코르닐로프는 이중권력 상태를 해소하고 독재체제를 수립하고자 하였으나 실패에 돌아갔다.

락하였다. 공세의 결과는 처참한 것으로 15만명이 사망하고 25만명이 부상을 당하였다. 결국 전선으로 병력을 보내야 하는 부대들의 병사들이 7월 3일 무장 시위를 요구하게 되었다. 이러한 요구는 노동자들과 크룬슈타트의 수병들의 열렬한 호응을 받았다. 그러나 이 투쟁은 목표나 방법이 불분명하고 준비되지 못한 상태였다. 이러한 이유에서 볼셰비키는 이 시위를 취소하려 하였으나 그러지 못하였고, 결국 평화적 시위로 유도하기 위하여 시위의 최전두에 서기로 한다. 며칠 밤낮 동안 진행된 시위는 대중들의 분노를 표현하기에 충분하였다. 그러나 이 '7월사태'는 반혁명의 대대적인 공세를 몰고 온다. 전선에서 공세의 실패를 볼셰비키의 탓으로 돌리는 악선동이 시작되었고, 우익조직들이 거리로 몰려나왔다. 레닌은 독일의 간첩으로 내몰리게 되었다. 볼셰비키의 신문은 폐간되고 사무실은 파괴되었다. 볼셰비키는 탄압을 받아 레닌과 지노비예프는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고, 카메네프와 트로츠키는 감옥에 수감되었다.

'7월사태'는 러시아 혁명운동에 큰 교훈을 주었다. 7월사태를 통해 노동자, 병사들은 반혁명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게 되었고, 조직되고 준비되지 못한 투쟁이 아니라 잘 준비된 투쟁만이 승리를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교훈을 깨달았다.

8월이 되자 총사령관인 코르닐로프는 이중권력 상태를 해소하고 독재체제를 수립하고자 하였다. 이 쿠데타는 반혁명세력의 엉성한 준비와 군대 내의 반발로 실패에 돌아갔다. 한편 페트로그라드의 노동자, 병사들은 반혁명에 대항하기 위해 일어섰다. 군대의 모든 명령은 혁명방어위원회의 공동서명이 들어가야만 유효하게 되었으며, 혁명방어위원회는 수도 내 반혁명 조직을 수색, 소탕하였다. 노동자들에 대한 무장과 군사훈련이 추진되었다. 그리고 크룬슈타트 수병

과 비보르그 지구의 노동자들은 쿠데타로부터 수도를 수호하기 위해 병력을 집결시켰다.

코르닐로프 쿠데타는 이중권력이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부르주아지들은 반혁명적으로 변화하였고 멘세비키와 사회혁명당은 이러한 부르주아지와 긴밀하게 얽혀 있어 소비에트를 부르주아지의 부속물로 만들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르주아지는 더욱 더 소비에트를 없애고 혁명을 질식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7월 사태에서 보였듯이 대중들의 분노는 더욱 고양되고 확대되고 있었다. 그리고 페트로그라드와 모스크바 및 주요 공업도시의 소비에트에서는 볼셰비키가 다수파가 되기 시작하였다. 1917년 중반을 넘어서면 혁명의 발전은 소비에트의 평화적인 권력이전, 그 안에서 소비에트 정책을 개조하는 방식으로 혁명을 발전시키는 것은 어렵게 되었다.



10월 혁명시기 동궁을 향해 진격하는 병사들. 이 사진은 10월 혁명 3주년을 기념하여 재현한 사진이다.

따라서 이중권력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서 봉기가 혁명 일정에 오르게 되었다. 1917년 10월 9일에 열린 볼셰비키의 중앙위원회에서는 무장봉기의 준비를 결정하고 이를 위해 7인의 정치국을 구성하였다. 6일 후 페트로그라드 소비에트는 ‘군사혁명위원회’를 창설했다. 무장봉기의 일정은 제 2차 전러시아소비에트대회가 열리는 10월 25일 이전으로 결정되었다. 그리고 10월 25일 새벽 무장봉기가 시작되었다. 시내의 주요거점이 점거되고 임시정부 요인은 체포되거나 망명하였다. 당일 아침 10시에 페트로그라드 노동자 병사 대표 소비에트 군사혁명위원회 명의의 “러시아 시민들에게”라는 글이 발표되었다. 페트로그라드에서는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무장봉기에 성공하였다. 모스크바에서의 봉기는 격렬한 교전이 발생하여 사상자가 생기기도 하였다.

10월 25일 저녁에 열린 제 2차 전러시아소비에트대회는 노동자, 병사, 농민 대표 소비에트의 권력이행이 선포되었다. 다음날 열린 회의에서는 ‘노동자, 병사, 농민에게’라는 글과, “평화에 관한 포고”, “토지에 관한 포고”가 통과되었으며, 새로운 정부인 인민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이는 최초의 노동자 농민의 정부였다.

다. 10월 혁명의 의미

러시아 10월 혁명은 역사상 최초의 승리한 사회주의혁명이었다. 사회주의 혁명은 자본주의가 가장 발달한 곳에서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 체제의 가장 약한 고리에서 일어났다. 이는 사회주의 혁명에 대한 도식적인 사고방식을 깨고, 세계 자본주의 체제 전체 속에서 혁명을 사고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러시아 혁명은 후진적 사회에서 일어났지만, 이는 동시에 고도로 발전한 자본주의인 독점자본주의의 모순이 심화된 결과 발생한 것이었다. 자본주의의 급속한 발전으로 생긴 대공업과 집중되고 단결된 힘을 지닌 노동자계급의 존재, 후진적 사회와 결합된 자본주의발전에서 오는 체제의 취약성, 제국주의 전쟁의 고통 등 여러 요인들이 결합하여 러시아 혁명을 야기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요인들은 러시아 혁명이 사회주의 혁명으로 발전할 수 있게 하였다.

러시아 10월 혁명은 세계자본주의와 제국주의의 약한 고리에서 발생한 최초의 사회주의혁명으로서 이를 계기로 마침내 전세계적으로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로의 역사적 이행 시기가 현실에서 실제로 시작되었다. 러시아 10월 사회주의혁명의 세계사적 의의는 바로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 이행하는 시대를 열었다는 데에 있다. 러시아 10월 사회주의혁명은 이미 자본주의가 역사의 발전에서 그 진보적인 역할을 다하고 반동적인 것으로 되었음을, 이미 쇠퇴해가는 단계에 들어섰음을 입증해주었으며 전세계 노동자계급과 피억압 민중, 피억압민족에게 착취와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에 대한 희망과 열정을 불러일으켜 자본주의 나라들 특히 독일 등 선진자본주의나라에서의 노동자계급의 혁명적 투쟁과 조선, 중국 등 식민지, 반식민지나라들에서의 민족해방투쟁의 일대 고양을 가져왔다. 비록 20세기 후반에 발생한 ‘현실사회주의’의 붕괴로 사회주의운동은 심대



공장위원회의 회합. 혁명의 열정으로 가득찬 공장을 느낄 수 있다.



코민테른이 1920년 바쿠에서 개최한 제 1차 동방피억압민족대회

한 타격을 받았지만 이 사태가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로의 이행시대를 되돌리지는 못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러시아 10월 혁명은 세계사적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러시아 10월 혁명 과정에서도 1871년 파리코뮌에서 등장하였던 것과 유사한 노동자국가가 등장하였다. 러시아 혁명 속에서 노동자와 민중은 자신들의 자주적 권력기구인 소비에트를 만들어 내었는데, 이 소비에트는 파리코뮌처럼 “노동자들이 국가의 운영에 최대한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자신을 대표하는 자들이 자신으로부터 독립적인 세력으로 전환하는 것을 막는 형태였으며 의회식이 아니라 입법과 행정이 통일된 형태”였다. 비록 파리코뮌은 프랑스 지배계급의 학살 속에서 단명하였지만, 러시아의 소비에트는 10월 혁명의 굳건한 토대로서 혁명이 승리한 후 국가기관으로 전환하였다.